

“1박2일’ 인기 최고였지만 바쁜 삶이 싫어 포기 자유롭게 일하려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만들어요”

나영석 PD 광주대서 강연

‘꽃보다 할배’ 그리스편 촬영하고 돌아와 1000여명 신입생들에 삶의 경험 들려줘

KBS ‘1박 2일’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을 알린 나영석(40)PD. 그는 ‘믿고 보는 PD다’. 흑산도와 독도, 백두산 등 한반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멀쩡한 음식 대신 끼니를 먹고 눈 내리는 겨울밤 야외취침을 하는 모습에 일부 시청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복불복’과 ‘리얼야생버라이어티’를 외치며 자신이 맡은 ‘1박 2일’을 ‘국민예능’으로 자리매김시켰다. 덕분에 나PD는 MBC ‘무한도전’ 김태호 PD와 전성기를 구가했다. 충남 보령 출신이자 94학번인 김태호 PD가 특별한 기획으로 젊은 시청자들에게 주목받았다면, 충북 청주 출신 94학번인 나PD는 ‘착한예능’을 표방하며 남녀노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시청률을 얻고 있던 나PD가 돌연 퇴사를 밝히자 그만큼 뒷말도 많았다. 공중과 최고 인기 PD는 케이블 방송에 새 등지를 뒀다. 지난 26일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신입생 강연을 위해 광주를 찾은 그는 퇴사를 결심했던 과거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다른 전성기를 맞고 있는 현재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냈다.



“2주에 한 번씩 1박 2일을 촬영하며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소재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똑같은 시간에 방송해야 한다는 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5년간 딱 2번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정찬을 받으면서도 기쁘지 않았어요. 과연 내가 지금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 지금처럼 계속 살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최근 케이블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로 공중파 예능 시청률을 위협하고 있는 나PD. ‘1박2일’ 이후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황혼의 배낭 여행을 주제로 한 ‘꽃보다 할배’였다. 지난 25일 ‘꽃보다 할배’ 그리스편을 촬영하고 돌아온 그는 1000여 명 신입생 앞에서 긴장하면서도 이내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는게 중요’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는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질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선생님 뜻에 따라야 했기에 자신을 관찰하고 고민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 결국 즐거움을 찾지 못한 청춘은 졸업하고 취직해도 ‘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건 여러번 닦아 아니예요. 사회는 가고 싶은 대학, 원하는 직장을 못지만 ‘나’에 대해서는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기에 생각할 기회도 갖지 못했죠. 아무 관심 없던 행정학과에 진학해 만화방만 전전하던 ‘대학생 나영석’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바깥 건 책이었어요.”

연애를 해야 이상형을 알 수 있듯 ‘인간 나영석’을 알고 싶었던 그는 경험을 쌓기로 결심했다. 대학시절 동안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많은 경험을 쌓는 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을 통한 간접경험을 얻기로 선택했다. 재미없는 건 읽지 않았다. 글을 쓰는 건 부담스러웠기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다. 연극을 위해 수업도 포기했던 그는 연극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성공’이란 결과 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본인이 행복하게 몰두하는 시간이었다.

뚜렷한 꿈을 찾았기에 영화사에서 하드웨어를 하는 시간도 힘들지 않았고, PD시절에 떨어져도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비디오방을 전전하고 만화로 하루를 보내던 행정학과생은 책을 통해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렇게 ‘1박 2일’과 ‘꽃보다 할배’를 만들었다.

시정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케이블 방송에서 ‘꽃보다 할배’와 ‘삼시세끼’를 ‘자유롭게’ 만들며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밝혔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덧붙였다.

“스트레스는 결과가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발생하죠. 그런데 세상 일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요. 자신에 게 부끄러워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설명 끝이 나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하지 마세요.”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월간 **에스** 3월호 나왔다

‘KTIX, 문화광주와 통(通)하라’ 등 다양한 읽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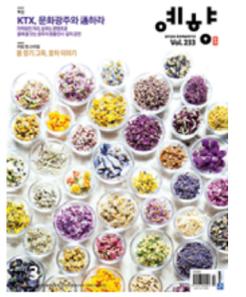
광주일보 문화전문매거진 ‘에스’3월(통권 233)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으로 발간된 3월호에는 특집 ‘KTIX, 문화광주와 통(通)하라’와 기획 ‘동네서점, 문화공간이 되다’ 등 심층기사와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오는 4월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서울과 광주는 1시간 30분대로 좁혀져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다. 특히 KTIX 광주구간 개통은 광주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호에서는 KTIX 개통 의의와 문화적 영향, 타 지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광주가 누릴 수 있는 KTIX 효과의 다양한 방안을 조명했다.

기획 ‘동네서점, 문화공간이 되다’에서는 북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네서점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의 동네서점은 단순한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닌, 문화 사랑방 ‘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을 통한 간접경험을 얻기로 선택했다. 재미없는 건 읽지 않았다. 글을 쓰는 건 부담스러웠기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다. 연극을 위해 수업도 포기했던 그는 연극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성공’이란 결과 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본인이 행복하게 몰두하는 시간이었다.

또 다른 기획 올 봄 대중문화계는 ‘백 투 더 90s’에서는 대중문화를 강타한 90년대 복고 신드롬의 현황과 제작 주체가 된 X세대, 새로운 소비자로 부상한 40대를 집중 취재했다. 연중기획 ‘사람이 브랜드다’는 가객 김광석의 낯을 대구 대방동을 찾아가 그의 음악에 깃든 삶을 조명했다. 특히



방천시장 인근 ‘김광석 거리’에서는 다양한 벽화로 부활한 김광석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학문과 현실을 넘나드는 대표적인 학자다. ‘에스’의 열정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도 문화여지도’에서는 낙죽산이 품은 천혜의 고장 구례를 찾아 역사와 문화,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한길을 걷고 있는 ‘남도의 장인들’편에서는 낙죽장 김기찬(중요무형문화재) 씨를 만나 그의 삶과 예술을 소개한다.

이밖에도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과 볼통기가 득한 꽃차 이야기, 박소빈 화가의 작업실 옆보기 등 재미있고 이색적인 기사들이 실려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작품 감상하다 터지는 웃음, 참지 마세요

광주 신세계갤러리 5일부터 ‘Life is a Comedy’전

‘웃음을 찾고, 웃음을 자아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광주 신세계갤러리는 5일부터 4월1일까지 ‘Life is a Comedy’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제민·박우성·변윤희·백상욱·백인태·여경란·유은석·이광기·이정운·조원훈씨 등 전국 젊은 작가 10명이 참여해 모두 3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다양한 소재와 매체로 우리 삶의 모습을 해석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김제민의 다양한 드로잉과 조원훈의 사진 콜라주 작품, 그리고 이정운의 코끼리 풍선시리즈는 식물과 동물을 의인화하여 미소 짓게 한다.

박우성의 담배를 문 ‘스파이더 맨’, 뚱뚱한 ‘아이언 맨’, 유은석의 4m가 넘는 ‘스마일을 좋아하는 겁쟁이’ 형



이정운 작 ‘해우소’

크’는 인간이 만들어낸 영웅 캐릭터를 이용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희화화한다.

백인태, 이광기는 간과하고 있는 무거운 사회적 문제들을 가볍게 표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전시 기간 중 21~22일, 28~29일에는 ‘키즈아트클래스-즐겁게 춤을 춰봐요’ 이벤트가 진행된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화제 작 ‘삼시세끼’ 소박한 밥상이 주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



‘차좁마’와 ‘참바다’씨. 만약 두 단어를 모른다면 지인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산체’와 ‘별이’까지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뱃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섬 ‘만재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차좁마와 참바다 씨는 나영석 PD가 만드는 케이블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 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지금저쪽 어부 라이프’ 예능을 표방하는 삼시세끼에는 70년생 동갑내기 두 사람이 등장한다.

차좁마로 불리며 예능 대세로 떠오른 차승원, 그의 ‘바깥양반’ 유해진, 모델 출신 차승원과 약방의 감초 같은 배우 유해진은 외모만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요리와 설거지를 적적 해내는 차좁마와 묵묵히 불

을 지피는 유해진은 묘한 조합을 보여주며 자연이 주는 여유를 오롯이 전달한다.

삼시세끼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밥을 짓고 설거지하는 게 내용 전부다.

뒷밭에서 기른 배추와 집된장으로 국을 끓이고, 운 없는 노래미가 잡히는 날에는 회덮밥과 생선 매운탕을 끓인다. 김치 볶음밥, 무국 등 등장하는 요리가 특별한 것도 아니다. 과장된 몸짓과 신변잡기 이야기만 넘쳐나는 예능프로그램 사이에서 삼시세끼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두 손으로 밥 흘려 차린 소박한 식사가 가장 맛있는 밥이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월 23일 첫 방송된 삼시세끼 어촌 편은 지상파 포함 3주 연속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민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